



08-05 (통권 283호)

2008.2.1

# 韓國經濟週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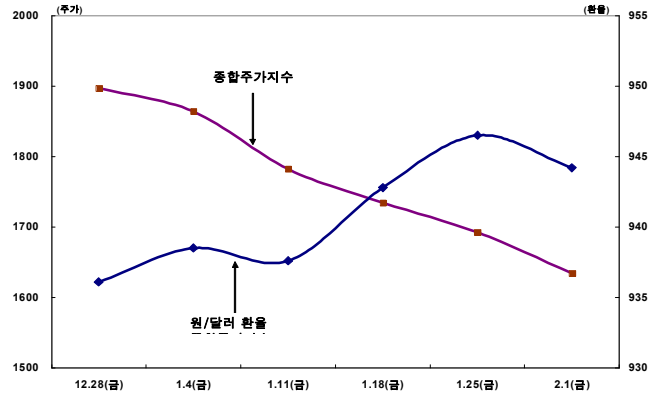
■ EU 신아시아 전략의  
분석과 시사점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원, 홍순직, 이부형, 허만울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030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02-3669-403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Better than  
the Best!

月間 主要 經濟 指標 (12.28~2.1)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EU 신아시아 전략의 분석과 시사점	1
월간 경제 동향	23
□ 실물 부문 : 국내경기 둔화 우려	23
□ 금융 부문 : 주가 및 금리의 대폭 하락	24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3669-4121, swan@hri.co.kr)  
 □ 동북아연구센터 : 이 해 정   연 구 원               (3669-4487, hjlee@hri.co.kr)

## Executive Summary

### □ EU 신아시아 전략의 분석과 시사점

#### 1. 개요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정치·경제의 역학 관계에서 EU 회원국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국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2001년 5월 북한-EU간 공식적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고, 현재 북한은 27개 EU 회원국 중 프랑스와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25개국과 수교한 상태이다. 또한 EU는 대북한 교역액이 23억만 달러(2006년 기준)를 차지하여 북한 전체 교역액의 10%를 차지하는 3대 교역 파트너이며 EU 기업 차원의 대북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제사회에서 EU의 북한 문제에 대한 영향력 증대에 대응한 우리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EU의 북한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남한의 대북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EU의 대북 진출 기업 사례 연구를 통해 대북 투자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대북 투자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EU의 신아시아 전략과 대북 경제 지원

**(EU의 신아시아 전략)** 1994년 EU 집행위에서 채택한 『신아시아 전략(Towards New Asia Strategy)』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EU는 아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정치 및 안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밝히고 있으며, 그 세부 전략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아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국제 정치의 영향력 확대로 아시아와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핵 문제와 같은 군사적 차원의 지역 안보에 대한 새로운 역할을 설정하기 위함이다. 셋째, 아시아와의 정치·경제적 상호 협력을 통해 이 지역의 안정성,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법치, 인권 성장을 고무해 EU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넷째, 아시아의 빈곤 지역에 대한 빈곤 탈출과 경제 발전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원하여 EU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신아시아 전략에 따라 북한에 대해서도 정치 대화를 유지하면서도 비핵화의 원칙을 강조하고, UN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하는 등 EU의 가치 전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동시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한 EU의 외교적 이미지 고취에 주력하고 있다.

**(EU의 대북 경제 지원 프로그램)** EU의 대북 지원은 인도적 지원, 식량 지원, 기술 지원, KEDO 지원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밖에 EU 개별 국가 및 NGO 차원에서 개방 경제 체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 정권이 아닌 주민들의 식수, 보건 위생 및 식량 등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개방된 시장경제 도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핵 문제와 같은 정치·안보 사안과는 무관하게 진행하는 분리 접근의 원칙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 지원이나 KEDO 지원의 경우 북핵 문제의 진행 상황과 연동 접근의 원칙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인도적 지원은 1995년 북한의 홍수 피해에 대한 EU 집행위원회 산하 인권사무국 (ECHO : European Commission Humanitarian Aid Office)의 지원으로 시작되었다. 현재는 기초 의료와 식수, 공중 위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이 진행 중이다.

식량 지원은 1997년부터 EU 산하 식량 지원 안전 프로그램(Food Aid and Food Security Programme)의 관리 하에 진행되고 있다. 1999년까지는 총 규모의 2/3정도가 단순 식량 지원이었으나 2000년에 접어들면서 비료 지원, 협동농장 개선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 및 기술 지원에 집중되고 있다.

기술 지원은 2001년 2월 실사를 위해 북한에 전문가들을 파견, 전문가 지문을 참조하여 『The EC-DPRK Country Strategy Paper 2001-2004』(『CSP』)와 후속 조치인 『National Indicative Programme 2002-2004 DPRK』(『NIP』) 채택으로 진행되었다. 『CSP』에서는 2001년~2004년까지 연간 500만 유로 상당 지원 계획을 밝히고 있다. 『CSP』의 구상을 수정하여 구체화한 『NIP』에서는 2002년~2004년까지 3년간 1,500만 유로를 책정하여 3가지 기술 지원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다. '제도적 지원 및 역량 제고' 계획은 주요 정부 관료의 훈련 및 EU로의 견습 지원 및 경제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법체계 구축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천연자원의 관리 및 활용 '계획은 에너지 분야의 효과적 관리에 대한 교육 및 경험 전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 계획은 농촌 개발 전략에 대한 교육 및 기술 경험 전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KEDO 지원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KEDO 이사국 및 회원국의 지원 총 규모 중 6%에 해당하는 사업비 총 1억 2,330만 달러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밖에 각 회원국과 NGO들은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 프로그램』과 영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개방 경제 체제에 적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 핵 문제와는 별도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 3. EU 기업별 대북 투자 전략 분석

2000년 이후 EU 기업 대북 투자의 동기별 유형을 분석해보면 자원 확보 목적, 기간 산업 선점 목적,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에 대한 투자 목적, 저렴한 인건비 활용 목적, 북한 관광자원 활용 목적의 5가지 유형으로 분석할 수 있다.

자원 확보 목적의 투자는 북한을 광물자원의 보고로 평가하여 광물자원에 대한 적극적 개발로 진행되고 있다. 영국의 앵글로 지노 캐피탈은 5천만 달러 규모의 초선개발투자펀드'를 조성하여 북한의 광산, 광물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국 ORIND사는 북한과 마그네사이트를 공동 개발중이다. 영국 아미넥스 정유회사는 북한 유전 개발과 관련한 20년간 시추권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프랑스의 Lafarge SA는 평양 상원시멘트 회사의 절반을 소유한 이집트의 오라콤사를 인수하였다.

기간 산업 선점 목적의 투자는 발전 설비 및 통신망 현대화 사업과 철도 운송 시스템 현대화 사업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다. ABB사는 북한내 배전망 현대화에 관한 '전기기계설비 생산과 전력망 현대화 협조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독일 KCC Europe은 북한 온라인 시장 선점을 위해 53만 파운드를 투자하는 동시에 대나라 라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개설하였다. 스웨덴 에릭슨사는 북한내 무선통신장비 설치 사업 참

여를 모색중이며, 프랑스 알카텔사는 북한의 노후한 통신 분야 보수 및 교체 작업을 실시하였다. 오스트리아 F.J Elsener Trading사는 북한 철도청과 철도 레일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에 대한 투자 목적에서는 투자 정보 수립 및 컨설팅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독일 동아시아협회(OVA)는 평양사무소를 개설하여 기업간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국 파비엔 픽테트 앤 파트너스는 북한 합작회사들에 대한 투자 목적의 펀드를 조성중이다. 영국 KBC사와 이탈리아 브린델리 컨설팅사는 평양에 투자 관련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고, 프랑스 리브라 카운셀사도 북한 내 컨설팅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투자는 위탁가공 사업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오스트리아 제이 네멧쉬케사는 평양피아노와 합작계약을 체결하여 피아노를 생산하였으나, 2007년 상반기를 끝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프랑스 애니메이션 제작업체는 북한의 SEK Studio와 수차례 애니메이션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북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투자는 주로 북한의 폐쇄사회로서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수도권 관광 위주로 진행되었다. 독일 베를린 여행사는 북한 철도여행상품을 개발하였고, 프랑스 CGTT 여행사는 평양, 남포, 개성 방문의 8일 코스 상품을 개발하였다.

투자 동기		내용
자원 확보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英) 앵글로 지노 캐피탈사는 북한 광산, 광물 개발 목적 5천만 달러 규모 '조선개발투자펀드' 조성(중액 예정)</li> <li>- (英) ORIND 북한과 마그네사이트 공동 개발 사업 중</li> <li>- (英) 아미넥스 정유회사 북한 유전개발과 관련하여 20년간 시추권 계약 체결(채굴 가능 원유 매장량 40억~50억 배럴)</li> <li>- (佛) Lafarge SA는 평양 상원시멘트사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 이집트의 오라콤 시멘트회사 인수</li> </ul>
기간 사업 선점 목적	발전 설비 및 통신망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B사는 북한 내 배전망 현대화에 관한 '전기기계설비 생산과 전력망 현대화 협조 합의서' 체결</li> <li>- (獨) KCC Europe은 북한 온라인시장 선점을 위해 53만 파운드 투자, '내나라'라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개설</li> <li>- (瑞典) '에릭슨사' 북한 내 무선통신장비 설치 사업 참여</li> <li>- (佛) '알카텔사' 북한 노후화된 통신 분야 보수, 교체 작업</li> </ul>
	철도 운송 시스템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澳) F.J. Elsener Trading 북한 철도청과 철도 레일 납품 관련 계약 체결</li> </ul>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에 대한 투자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獨) 17개 기업 및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동아시아협회(OVA)' 평양사무소를 통해 양국 기업간 개별 상담 진행</li> <li>- (英) '파비엔 픽테트 앤 파트너스'는 북한 합작회사들에 대한 투자 목적 펀드 조성 중</li> <li>- (英) '코리아 비즈니스 컨설팅사'는 평양에 지사 설립</li> <li>- (伊) '브린델리 컨설팅사' 평양 투자 관련 법률사무소 개설</li> <li>- (佛) '리브라 카운셀사' 북한 내 컨설팅 사무소 설립</li> </ul>
저렴한 인건비 활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獨) '제이 네멧쉬케사' 평양피아노사와 합작 계약 체결, 2003년부터 피아노 생산 시작</li> <li>- (佛) 애니메이션 제작업체는 북한의 SEK Studio와 수차례 애니메이션 제작 계약</li> </ul>
북한 관광자원 활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獨) 베를린 여행사 북한 철도여행상품 판매</li> <li>- (佛) CGTT 여행사 평양, 남포, 개성 방문의 8일 코스 상품 판매</li> </ul>

#### 4. 시사점

**첫째, 인도적 지원과 식량 지원 사업은 북핵 문제와 별개로 꾸준히 지속해 나가야 한다.** 인도적 지원과 식량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북한의 핵문제 기타 안보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주의적 접근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범위를 단순한 쌀 지원이나 구호품 지원의 범위가 아닌 기초적 삶의 질 개선까지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식수 문제 뿐 아니라 보건 의료 분야와 공중 위생 분야와 관련하여 현재의 낙후된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 전략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전수를 통해 기초적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농업 기술 교육 시범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남한 단위농협이 북한 협동농장에 대한 영농기술지도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양성된 북한 지도자를 각 협동농장에 파견하는 형태로 추진될 수 있다.

**둘째, 북한에 대한 글로벌 개방 경제 체제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남북간 경제전문가 및 실무자간 세미나를 정례화하여,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의견 교환이 가능하도록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 대학과 기업체들이 북한 관리 및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경제 체제에 관한 연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경제 발전 노하우를 전수하여야 하며, 영어 등 어학 연수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모색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 개발 관련 법제 인프라 구축 노력을 독려하고, 남한의 입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 (ADB), 유럽부흥은행 (EBRD) 등 국제금융기구의 주요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 프로그램으로 지원대상국에 제공되는 입법지원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북한 법 집행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시킬 수 있다.

**셋째, 남북간 협력에 의한 한반도의 자원 확보 노력이 시급하다.** 유럽국가들의 자원 확보 노력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고, 새 정부도 글로벌 에너지 외교를 강조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 광물자원 개발 로드맵을 작성하여 장기적 안목의 남북간 광물자원 개발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광산 및 광물의 굴진과 선광 능력 등을 갖춘 북한 광물회사와 합영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개별 광산 투자 운영의 규모 및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천연자원 개발과 효율적 관리에 대한 교육을 통해 노하우를 전수하고, 협력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추진 가능하다.

**넷째, 북한 기술 표준 설정을 위한 기간 산업 분야의 남북 경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인프라의 경우 철도·통신 등의 분야에 대한 기술 표준 설정이 중요한데 이 분야에 대한 남북간 협력을 통해 북한 기간 산업에 대한 EU기업의 선점을 견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발전 설비 및 통신망 관련 사업을 개성공단 등지에서 북한 전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주요 도시의 발전 및 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민간 PF 및 남북 SOC 협력 자금 조성국과 국제 기구 자금 및 국제 인프라 펀드 활용 등 국내외 자금 확보를 통해 북한 철도 운송 인프라 개보수 사업의 진행도 추진 가능하다.

## < EU 신아시아 전략의 분석과 시사점 >

EU의 신아시아 전략과 대북 접근 방식	
EU의 신아시아 전략	대북 접근 방식
① 아시아 정치 경제 성장에 따른 새로운 관계 정립 ② 새로운 지역 안보에 대한 역할 설정 ③ 아시아 지역의 안정성, 민주주의 공고화와 법치, 인권 성장 고무 등 EU 가치 간접적 확인 ④ 아시아 빈곤 지역에 대한 인도적 차원 정책 지원 EU의 외교적 이미지 제고	① 북한과 정치 대화 유지 ② 비핵화의 원칙 강조 ③ UN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주도로 EU의 가치 전달 노력 ④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한 EU의 외교적 이미지 고취

EU의 대북 경제 지원 프로그램	
원칙	- 인도적 지원, 『시장경제 교육 프로그램』은 정치 안보 상황과 분리 접근 원칙 - 기술 지원이나 KEDO 지원은 북핵 진행 상황과 연동 접근 원칙
지원 프로그램	- EU 차원 : 인도적 지원, 식량 지원, 기술 지원, KEDO 지원 - 각국 및 NGO 차원 : 『시장경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

EU 기업별 대북 투자 전략 분석	
자원 확보 목적	- 미지의 보고인 북한 유전, 광물자원 개발 투자를 통해 자원 선점 효과 획득 - 마그네사이트 개발, 유전 개발, 광물 개발 펀드, 시멘트 회사 인수 등
기간 산업 선점 목적	- 발전 설비 및 통신망 현대화, 철도 운송 시스템 현대화 사업 등 인프라 선점 - 온라인 시장 선점, 무선통신장비 설치, 통신 분야 개보수, 철도 레일 납품 등
시장 확대 가능성 투자 목적	- 신흥 이머징 마켓으로 잠재 성장성에 대한 기대 시장 확대 대비 포석 차원 - 투자 상담 컨설팅, 투자 관련 법률사무소 개설 등
저렴한 인건비 활용 목적	- 북한의 저렴한 양질 노동력을 활용한 위탁가공 사업 진행 - 피아노 생산, 애니메이션 제작 등
북한 관광자원 활용 목적	- 폐쇄 사회 특수성으로 인한 수도관광 매력 - 철도여행상품, 평양-남포-개성 방문의 8일 코스 상품 판매 등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적 지원과 경제 개발 지원의 분리 접근 원칙</li> <li>◆ 북한에 대한 글로벌 개방 경제 체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li> <li>◆ 남북간 협력에 의한 한반도 자원 확보</li> <li>◆ 북한 기술 표준 설정을 위한 기간 산업 분야 남북 경험 지속적 추진</li> </ul>



## 1. 개요

### ○ 북한에 대한 EU의 역할과 위상

- **주요 원조국** :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정치·경제의 역학 관계에서 EU 회원국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국제 변수로 작용
- **대북한 외교 관계 수립** : 2001년 5월 EU 대표단이 방북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가졌으며, 같은 해 5월 14일 유럽 집행위원회가 북한-EU간 수교를 결정함으로써 공식적 외교 관계 수립
  - 현재 북한은 27개 EU 회원국 중 프랑스와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25개국과 수교한 상태임
- **3대 교역 파트너** : EU는 북한의 3대 교역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EU 회원국 내 대북 투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거나 적극적 역할 수행에 나서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음
- **2.13 합의 이후 정치·경제 분야의 교류 확대** : 2.13 합의 이후 북한과 EU 간의 정치 대화가 재개되고, 북한에 대한 경제 분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지난 3월 EU 트로이카 대표단<sup>1)</sup>의 방북에 이어 EU 의회 대표단이 6월 남북한을 동시 방문
  - 주한 EU 상의 주도로 외국 기업단이 지난 3월 개성공단을 방문한 데 이어 EU 본부 측은 북한 기업 대표들을 이탈리아 토리노로 초청 북-EU 기업간 비즈니스 미팅을 겸한 워크숍 개최(2007.3.28~29)

1) EU 트로이카 대표단은 순회 의장국인 독일의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과 베니타 페레로-발트너 EU 대외 관계 담당 집행위원, 하비에르 솔라나 EU 외교 정책 대표(EU 이사회 사무국 대표)를 말함.

○ 북한과 EU의 관계 연혁

- 1990년대 중반부터 관계 확대 : EU는 1994년 신아시아 전략을 채택하고, 북한이 1995년 대홍수로 서방국가에 대한 원조를 요청하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을 시작으로 북한과 EU간 관계가 확대됨
  - 북한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1995년과 1996년 홍수와 1997년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
- 정치적 관계 발전 : 1998년부터 북한과 EU는 고위급 정치 대화를 시작하면서 정치적 관계가 발전하여, 2001년 5월 외교 관계를 수립함
  - (고위급 정치 대화) 북한과 EU는 1998년 이래 트로이카<sup>2)</sup> 차원의 외교부 지역국장급 정치 대화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04년 11월 제7차 정치 대화가 평양에서 개최됨

< 북한과 EU의 관계 >

	내용
1998. 12	- 브뤼셀, 제1차 고위급 정치 대화
1999. 11	- 브뤼셀, 제2차 고위급 정치 대화
2000. 11	- 평양, 제3차 고위급 정치 대화
2001. 10	- 평양, 제4차 고위급 정치 대화
2001.5.14	- 북한-EU간 외교 관계 수립
2002. 2	- EU 『The EC-DPRK Country Strategy Paper 2001-2004』 (『CSP, 국가전략보고서』) 채택
2002. 6	- 평양, 제5차 고위급 정치 대화
2002. 7	- EU 『CSP』의 후속조치로 『National Indicative Programme 2002-2004 DPRK』 (『NIP, 국가지표프로그램』) 채택
2002. 10	- EU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
2003. 12	- 제6차 고위급 정치 대화
2004. 8	- 평양, 제1차 북한-EU간 경제토론회
2004. 11	- 평양, 제7차 고위급 정치 대화
2005. 10	- 평양, 제2차 북한-EU간 경제토론회
2005. 11	- EU는 UN 북한 인권결의안 상정을 주도하여 채택됨
2006. 10	- 북한 최고인민회의대표단 EU의회 방문
2007. 3	- EU 트로이카 및 차기 의장국 대표 등으로 구성된 EU 대표단 방북
2007. 6	- 유럽의회 한반도 의원대표단 방북
2007. 10	- 평양, 제3차 북한-EU간 경제토론회

※ 2005년도는 EU의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 상정에 반발하여 북한이 정치 대화 거부

2) EU 트로이카 : 순회 의장국과 EU 집행위원회, EU 이사회 사무국 등을 말함.

○ 북한과 EU의 경제협력 현황

- 북한과 EU 간 교역 관계 : EU는 북한의 제3대 교역 파트너로 북한의 전체 무역에서 약 10% 정도를 차지<sup>3)</sup>
- (2002년 이후 무역 규모 지속적 감소) : 2000년 초반 EU과 북한의 관계 발전에 따라 점차 증가하던 교역량이 2002년 북핵문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sup>4)</sup>
- (북한은 EU에 대해 적자 교역 지속) 북한은 EU과의 교역에서 천만 달러 정도의 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
- (EU 국가 중 최대 교역국은 독일) 2006년 기준 EU 회원국 중 북한의 최대 교역 파트너는 독일이며,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스페인 등이 그 뒤를 따름

< 북한과 EU간 교역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

	북한의 수출		북한의 수입		합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01	81	- 10.4	232	40.3	314	22.5
2002	65	-24.6	283	16.6	348	9.8
2003	61	-6.6	257	-10.1	318	-9.4
2004*	87	-	174	-	261	-
2005	91	4.9	201	15.3	292	11.8
2006	70	-23.3	165	-18.1	234	-19.9

\* 2004년 5월 10개국 이 신규 가입하여 그전의 교역액과는 유의미한 비교가 불가능  
 자료 :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참조.

○ 연구 목표

- 한국의 대응 전략 제시 : EU의 경제·인도적 부문 역할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영향력 증대에 대응한 우리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대북 지원 방향성 모색 : EU의 북한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대북 기술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대북 투자 전략 모색 : EU의 대북 진출 기업 사례 연구를 통해 대북 투자 유형을 살피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대북 투자 전략을 살피고자 함

3) 이상민, “북핵 사태 해결 이후 북-EU 경제 관계의 항방”, KOTRA. 2007. 3, pp. 6~9 참조.  
 4) 2005년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6년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섬.

## 2. EU의 신아시아 전략과 대북 경제 지원

### 1) EU의 신아시아 전략

○ (신아시아 전략) 1994년 EU집행위원회에서 『신아시아 전략(Towards New Asia Strategy)』 보고서를 채택하여 아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정치 및 안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함<sup>5)</sup>

- 신아시아 전략의 세부 전략 목표 :

- ① 아시아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국제 정치의 영향력 확대로 아시아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필요성 대두,
- ② 북한의 핵 문제와 같은 군사적 차원에서도 새로운 지역 안보에 대한 역할 설정 필요,
- ③ 아시아와 정치, 경제적 상호 협력과 이해를 통해 이 지역의 안정성,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법치, 인권 성장을 고무해 EU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확인,
- ④ 아시아의 빈곤 지역에 대한 빈곤 탈출과 경제 발전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기존 정책을 지원함으로써 EU의 외교적 이미지 제고

- 신아시아 전략의 내용 : 1994년 유럽 집행위원회의 『신아시아 전략(Towards New Asia Strategy)』 보고서에서는 세계 경제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EU 공동체 차원의 아시아 정책 필요성을 강조

- 위 보고서는 대아시아 외교의 일반 목표, 아시아와의 관계에서 EU의 정책 수단, 아시아에 대한 EU의 정치적 접근 전략, 통상 및 협력 분야에서 EU의 새로운 대아시아 시각에 대해 다루고 있음

○ EU의 신아시아 전략에 따른 북한의 위상

- 전시적 상징성 : EU가 아시아와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군사적 차원에서 새로운 지역 안보를 위한 군축 및 비핵화 등을 위한 대화를 발전시키는 데 북한 문제는 전시적으로 활용

5) 김성형, 「유럽연합의 신 대북 협력 정책 : EU 집행위원회 전략보고서를 중심으로 (1989~2002)」, 『한국정치외교사논집』 제26집 2호, pp.31~34 참조.

- **EU의 원칙 재확인** : 정치·경제적 상호 협력과 이해를 통해 한반도와 아시아 지역의 안정성, 민주주의 공고화와 법치, 인권 성장 고무 등을 통해 EU의 원칙을 대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EU의 이미지 제고** :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의 빈곤 지역에 대한 빈곤 탈출과 경제 발전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기존 정책을 지원함으로써 EU의 외교적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음

### ○ EU의 대북 접근 방식

- 북한과 정치 대화를 유지하면서도 비핵화의 원칙 강조, UN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하는 등 EU의 가치 전달 노력,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한 EU의 외교적 이미지 고취

## 2) EU의 대북 경제 지원 현황

### ○ 인도적 지원

- **ECHO 프로그램** : 1995년 북한의 홍수 피해 지원을 위해 EU 집행위원회 산하 인권사무국(ECHO : European Commission Humanitarian Aid Office)은 국제적 십자사를 통해 지원을 시작
  -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와 위생 시설의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공공 의료기관에 의약품과 의료 시설을 공급함
- 또한, 2008년 중반 완료를 목표로 기초 의료와 식수, 공중 위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진행 중임

### ○ 식량 지원

- **식량 지원 안전 프로그램** : 1997년 이후 EU 산하 식량 지원 안전 프로그램 (Food Aid and Food Security Programme)의 관리 하에 대규모 식량 지원과 취약 계층 지원을 꾸준히 실시

- 이는 EU 자체 프로그램 외에도 비정부기구들과 UN 산하 세계식량계획 (World Food Programme : WFP)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짐
- 지원 부문이 초기 단순 식량 지원에서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한 비료 및 기술 지원으로 개선
  - 1999년까지는 총 규모의 2/3정도가 단순 식량 지원이었으나 2000년에 접어들면서 비료 지원, 협동농장 개선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 및 기술 지원에 집중

< EU의 대북 경제 지원 현황 >

(단위 : 백만 유로)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인도적 지원 (ECHO)	0.3	0.5	19.7	4.7	4.8	8.1	3.4	21.0	17.3	15.5	13.7	8.0	117.0
식량지원 농업재건	-	-	57.9	55.2	30.0	25.3	24.5	20.0	8.0	8.0	-	-	228.9
소계	0.3	0.5	77.6	59.9	34.8	33.4	27.9	41.0	25.3	23.5	13.7	8.0	345.9

자료 : 조명철 외, 『북핵 해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활성화 방안 : 양자간 지원을 중심으로』, KIEP, 2005. 12. p. 195 재구성

○ KEDO 지원

- KEDO(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 EU는 1997년 9월 정식 가입하였으며, 가입 당시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한정하였다가 2001년 12월에 5년간 계약을 연장함
- (총 1억 2,330만 달러 지원) EU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KEDO 이사국 및 회원국의 지원 총 규모 중 6%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부담<sup>6)</sup>

○ 기술 지원

- 「CSP」와 「NIP」 채택 : EU는 2000년 10월 9일 GAC(General Affairs Council: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주요 우선분야에 대한 중기적 (mid-term) 기술 지원을 고려하고 그 타당성 조사 시행을 결정

6) 경수로 사업비 총지출액은 22억 69만 달러로 한국은 11억 8,660만 달러를 지원하여 전체 54%, 일본은 4억 5,282만 달러를 지원하여 전체 21%, 미국은 4억 511만 달러를 지원하여 전체 18%를 지원하였음.

- EU는 GAC 결정사항을 근거로 2001년 2월 기술 지원에 대한 실사를 위해 북한에 전문가들을 파견
  - 그 실사 결과는 같은 해 3월 EU 회원국, 국제금융기구, 미국, 일본, 한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전문가들에게 보고
  - 실사와 보고 활동 등을 통한 전문가 자문을 참조하여 『The EC-DPRK Country Strategy Paper 2001-2004』 (『CSP: 국가전략보고서』) 와 그 후속 조치로 『National Indicative Programme 2002-2004 DPRK』 (『NIP: 국가지표프로그램』)를 채택
- 『CSP』의 주요 내용 : 『CSP』에서는 2001년~2004년까지 연간 500만 유로 상당 지원 계획을 다음의 제한된 분야에 집중하도록 정하고 있음
- ① 제도적 지원과 역량 제고 : 북한의 경제·사회적 구조 개혁을 위해 북한 관리들에게 제도적 경험을 전수하는 시범 프로젝트 구상
  - 일차적으로 국제 금융과 무역, 경제 관계와 경제 개발 원칙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이를 위해 2001년부터 연간 100만 유로의 재원 조달 제시
  - ② 천연자원과 환경의 보존 관리 및 활용 : 북한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실사 및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시범 프로젝트 구상
  - 에너지 부문을 거시적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적 측면을 감안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현실적 조치 모색
  - 이를 위해 EU가 2001년부터 연간 100만 유로를 책정하도록 권고
  - ③ 안정적 수송 체계 및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 : 안정적 수송 체계 확립을 위해 북한의 러시아와 한국과 협력 사업 진행에 대한 지원, 농작물 증산을 위해 토양 훼손 방지, 농장 및 삼림관리 개선 지원
- 『CSP』의 초기 성과 지표 : EU의 기술 지원 전문가들에 대한 프로그램 목적의 이동과 접근의 자유를 전제로 다음의 성과 지표 추구를 명시
- ① 기술 지원을 받고 소화하며 질적 관리와 피드백을 보장할 수 있는 관계 부서의 만족할만한 조직화
  - ② 전문가들의 적절한 접근 허용
  - ③ 교육 훈련 이후 북한 관리들이 시장경제원칙을 이해하고 대외 관계의 기술적 연계성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제고

- 『NIP』의 주요 내용 : 『NIP』에서는 안정적 수송 체계 지원 부분이 삭제 되는 등 『CSP』의 구상을 약간 수정하여 구체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1,500만 유로를 책정하여 3개의 기술 지원 프로젝트를 제시

< 『NIP』 기술 지원 프로젝트 (2002-2004) >

프로젝트	예산	내용
제도적 지원 및 역량제고	700만 유로	- 주요 정부 관료의 훈련 및 EU로의 견습 지원 : 특히 국제금융, 무역 및 시장경제 분야에 대한 교육 실시 - 경제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법체계 구축 지원 : 법치주의에 근거한 북한 법제 현대화(인권 문제 포함)
천연자원의 관리 및 활용	300만 유로	- 에너지 분야의 효과적인 관리에 대한 교육 및 경험 전수 : 에너지 개발과 함께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	500만 유로	- 농촌 개발 전략에 대한 교육 및 기술 경험 전수 : 특히 농업 용수 관치 및 토양 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자료 : 『National Indicative Programme 2002-2004 DPRK』 참조.

○ EU 개별 국가 및 NGO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 3차례에 걸친 경제토론회 개최 : 경제토론회를 통해 글로벌 개방 경제 체제의 성격과 외자 유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협력하여 서방 선진국에 대한 신뢰 및 투자 확대에 외자 유치를 위한 초석 마련
- 독일 나우만 재단은 북한과 EU간 경제토론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대북 투자 유치 전략 등을 전수하려 노력하고 있음

< 북한과 EU간 경제토론회 개최 연혁 >

구분	기간 및 장소	북측 참가	EU측 참가	회의 내용
제1차	2004.8.31~9.4 (5일간), 평양	- 외무성 관계자 등 70여 명	- EU위원회, EU 의회, 나우만재단 관계자 등 24명	- 북한-EU간 경험 발전 방안 - 경제개혁 지원 국제협력 사례 - 북한 경제 현대화 방안
제2차	2005.10.11~14 (4일간), 평양	- 외무성 관계자 등	- EU위원회, EU 8개국 경제인사, 나우만재단 관계자 등 26명	- 경제 관리에서 국가 역할 - 외자 유치 조건 및 전략 - 국영기업, 농업 구조 조정
제3차	2007.10.23~24 (2일간), 평양	- 조선상업회의소 관계자 등	- EU위원회, EU 의회 대표단, 각국 외교관 및 경제 전문가 등	- 농업·경공업·IT 등 산업 분야 - 무역 투자 활성화 - 금융 분야(결제 시스템) 등

\* 2006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으로 인하여 미개최.



- 『시장경제 교육 프로그램』 :

- 스웨덴 스톡홀름 상경대학 구주일본연구소는 2003년 12월 북한인들을 대상으로 화폐 개념, 기초경영학을 포함한 시장경제 교육 프로그램 시행
- 스위스 수출협회는 2001년 6월 취리히에서 '북한의 기업환경'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스위스 국제협상응용연구센터는 북한 관리를 대상으로 시장경제연수를 매년 실시

- 농업 교육 프로그램 :

- 스위스 개발협력청<sup>7)</sup>은 농업 지원 프로그램(2007.1.1~2009.12.31)에 480만 스위스 프랑, 경작 및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2005.1.1~2007.12.31) 210만 스위스 프랑, 농가 용자 지원 시범 사업(2005.4.1~2007.12.31) 130만 스위스 프랑 지원

- 어학 연수 등 기타 교육 프로그램 :

- 영국 캠브리지 대학은 북한 관리, 교수를 대상으로 영어연수 실시, 국제평화보도재단은 북한 언론인 양성 연수사업 추진 예정
- 프랑스는 2001년부터 공공행정, 사회과학, 어학, 건축 분야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초청 연수를 실시

### 3) 시사점

#### ○ EU의 대북한 정책

- 인도적 문제와 정치·안보적 문제 분리 접근 : 북핵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적 문제와 경제 원조 및 인도적 지원을 분리한다는 원칙하에 북한의 경제 위기 타파와 식량 부족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유지<sup>8)</sup>
- 북핵과 무관하게 식수 및 보건·의료와 공중 위생 등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조건없이 지속

7) 북한 내 개발협력청은 평양에 소재한 구 헝가리대사관저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5명이 스위스에서 파견되어 있고, 현지 10명의 프로젝트 담당관을 두고 있음.

8) 2002년 11월 일반이사회 결론에서도 대북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EU Council. 2002 참고).

- 기술 지원은 정치·안보적 문제와 연동 접근 : 2002년 여름부터 시행되기로 되어 있던 시장경제 교육과 에너지 분야 재구축 및 농촌 부문 개발의 두 가지 선도 프로젝트 시행이 10월 북핵 위기로 중단되면서 EU의 대북한 기술 지원 보류
- 『시장 경제 교육 프로그램』 등은 북핵과 별도로 진행 : 북한 관리에 대한 영어 연수 및 시장 경제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경제토론회 개최를 통해 북한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은 북핵 문제와 별도로 꾸준히 지속하고 있음

### 3. EU 기업별 대북 투자 전략 분석

#### 1) 각국 및 기업별 대북 투자 사례<sup>9)</sup>

○ 독일 : 북한의 6대 교역국, EU 국가 가운데 북한과 가장 활발한 경제교류를 진행

- EU 최대 교역국 : 독일은 2006년 북한과 총 7,629만 달러의 교역액을 기록하여, EU의 대북 교역액 가운데 32.6%를 차지함

- 대북 투자 사례 :

- 베를린 소재 컴퓨터 회사인 KCC Europe은 북한 온라인 시장 선점을 위해 53만 파운드 투자, '내나라'라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개설
- 베를린 여행사는 2004년 10월 북한 철도 여행 상품 판매
- 독일 17개 기업 및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동아시아협회(OVA)' 평양사무소를 통해 양국 기업간 개별 상담 진행
- 그밖에 스텐더 AG(농업, 어업 및 가축 사육 분야), 솔베이 파마슈티컬(화학, 섬유화학 및 제약 분야), 팔츠 상공회의소(유관단체 및 재단 지원), 하코베르케 International GmbH(환경기술, 쓰레기처리, 재활용 분야), 유럽 테크닉 펄스 GmbH(연마물질, 석재 가공, 유리, 기계 전기 분야), 쿠네-나겔(물류) 등의 기업이 있음

9) KOTRA 북한경제속보 및 각종 언론 보도 참조.

< 독일 기업의 대북 투자 사례 >

국가	분야	시기	내용
독일	인터넷 서비스	2004. 2	- 베를린 소재 컴퓨터 회사인 KCC Europe은 북한 온라인 시장 선점을 위해 53만 파운드 투자, '내나라'라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개설
	여행 상품	2004. 10	- 베를린 여행사는 북한 철도여행상품 판매
	투자 정보 수집	2002. 9	- 독일 17개 기업 및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동아시아협회(OVA)' 평양사무소를 통해 양국 기업간 개별 상담 진행

○ 스웨덴/ 스위스 : 스웨덴은 EU 국가들 가운데 대북 교역량 3위국, 스위스는 EU 회원국은 아니나 스웨덴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대북 사업 추진

- 스웨덴-스위스 합작 사업 : 양측의 합작 다국적 기업인 ABB(Asea Brown Boveil)사는 북한 금속기계공업성 및 전기석탄공업성과 북한 내 배전망 현대화에 관한 '전기 기계 설비 생산과 전력망 현대화 협조 합의서'를 체결

- 스웨덴의 대북 투자 사례 :

· 스웨덴의 '에릭손사'는 북한 내 무선 통신장비 설치 사업 참여 모색중

- 스위스의 대북 투자 사례 :

· 스위스 최대 유통업체 '미그로스사'는 2001년에 북한산 가방류, 가정용품 등 소비재 구매

· '인터퍼시픽 홀딩스사'는 200만 유로를 투자해 의약품 생산 기지를 확보하고, 북한 평양제약사와 평스 제약협력 합영회사를 2004년 6월 설립

· 컴퓨터 데이터 프로세싱 전문업체인 데이텍티비티 닷컴 사는 평양에 종업원 105명 규모의 공장 설립을 운영중이며, 솔쳐 테크놀로지 코퍼레이션사는 북한에 기관차 엔진 분야 수출을 모색중

< 스웨덴 및 스위스 기업의 대북 투자 사례 >

국가	분야	시기	내용
스웨덴 /스위스	발전 송전	2000. 11	- 스웨덴-스위스 합작 다국적 기업인 ABB사는 북한 금속 기계공업성 및 전기석탄공업성과 북한 내 배전망 현대화에 관한 '전기기계설비 생산과 전력망 현대화 협조 합의서' 체결
	무선통신	2002	- 스웨덴의 '에릭손사'는 북한 내 무선통신장비 설치 사업 참여 모색중
	소비재 구매	2001	- 최대 유통업체 '미그로스사'는 북한산 가방류, 가정용품 등 구매, 2001년 북한상품의 대 스위스 수출이 약 84만 달러
	의약품	2004.6	- '인터퍼시픽 홀딩스사'는 200만 유로를 투자해 의약품 생산 기지 확보, 북한 평양제약사와 평스 제약협력 합영회사 설립

○ 영국 : 2000년 12월 북한과 국교 수립, 북한 주재 공관 설치 후 활발한 경제 교류 진행

- 영국의 대북 투자 사례 :

- 2002년 10~11월에 광산 무역사절단, 섬유 무역사절단 파견
- 2004년 아미넥스 정유회사는 북한 유전개발과 관련 20년간 시추권 계약 체결
- 투자회사인 글로벌 그룹은 2005년 북한 고려은행과 합작하여 '고려 글로벌 신용은행' 설립
- BAT(British American Tobacco)는 2001년 북한 석용무역과 합작하여 710만 달러를 투자, 200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담배제조공장을 운영하여 연 20억 개피의 담배를 생산중<sup>10)</sup>
- 런던 소재 앵글로 지노 캐피탈은 북한에 5천만 달러 규모의 '조선개발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북한의 광산, 광물 개발에 사용 예정
- '파비엔 픽테트 앤 파트너스'는 2008년 1월 현재 북한 합작회사들에 대한 투자 목적 펀드를 조성 중
- ORIND는 북한과 마그네사이트 공동 개발 사업 중
- 영국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 KBC(Korea Business Consulting)사는 2006년 평양에 지사를 설립

10) 영국 Guardian Daily 보도, 2005.10.17일자

< 영국 기업의 대북 투자 사례 >

국가	분야	시기	내용
영국	담배제조	2001	- '브리티쉬 아메리칸 타바코사는 북한 석용무역과 합작하여 710만 달러 투자하여 담배제조공장 운영
	유전개발	2004	- 아미넥스 정유회사는 북한 유전개발과 관련하여 20년간 시추권 계약 체결(채굴 가능 원유매장량 40억-50억 배럴)
	금융	2005	- '앵글로 지노 캐피탈사'는 북한 자원개발사업 투자를 위해 5천만 달러 규모의 '조선개발투자펀드' 조성 계획 발표
		2008. 1	- '파비엔 픽테트 앤 파트너스'는 북한 합작회사들에 대한 투자 목적 펀드 조성중
컨설팅	2006	- '코리아 비즈니스 컨설팅사'는 평양에 지사 설립	

○ 이탈리아 : 2000년 1월 북한과 수교한 후 동년 9월 투자보장, 경제협력, 문화과학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 이탈리아의 대북 투자 사례 :

- FIAT사는 1999년 평화자동차와 합작으로 남포에 공장을 설립하여 씨에나, 도블로를 모델로 한 '휘파람', '빠꾸기'를 생산 중이며 현지에서 조립하는 Knock-Down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브린델리 컨설팅사는 2005년 6월 평양에 투자관련 법률사무소 개설, SE.GES.AM사는 고려호텔 부대시설에 투자

< 이탈리아 기업의 대북 투자 사례 >

국가	분야	시기	내용
이탈리아	컨설팅	2005. 6	- '브린델리 컨설팅사'는 평양에 투자관련 법률사무소 개설
	자동차	1999	- FIAT사는 평화자동차와 합작으로 '휘파람', '빠꾸기' 등을 현지에서 조립하는 녹다운 방식으로 생산중

○ 프랑스 : EU 회원국 27개국 가운데 에스토니아와 함께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유일한 회원국

- 프랑스의 대북 투자 사례 :

- 1985년부터 프랑스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는 SEK Studio(조선 4.26 아동 영화촬영소)와 애니메이션 제작 계약을 수차례 체결

- 프랑스 컨설팅 기업인 리브라 카운셀사는 2002년 북한 내 사무소 설립
- 프랑스 통신회사 알카텔은 1999년 말 북한 내 전화교환시 시스템 교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2년 북한의 노후화된 통신 분야에 대한 보수 및 교체 작업을 실시
- CTM사는 영화설비에 관한 투자를 진행 중이며, 프랑스 만화영화 ‘아스 테릭스’는 절반 이상이 임가공 형식으로 북한에서 생산됨
- CGIT 여행사는 2006년 4월부터 평양, 남포, 개성 방문의 8일 코스 상품 판매
- Lafarge SA가 이집트의 오라콤 시멘트 회사를 130억 달러에 매입<sup>11)</sup>하여 인수

< 프랑스 기업의 대북 투자 사례 >

국가	분야	시기	내용
프랑스	통신 분야	2002	- ‘알카텔사’는 북한의 노후화된 통신 분야 보수, 교체 작업
	컨설팅	2002	- ‘리브라 카운셀사’는 북한 내 컨설팅 사무소 설립
	애니메이션	1985	- 프랑스 애니메이션 제작업체는 북한의 SEK Studio와 수차례 애니메이션 제작 계약을 맺었으며, 프랑스 만화영화 ‘아스 테릭스’는 절반 이상이 임가공 형식으로 북한에서 생산
	여행 상품	2006. 4	- ‘CGIT’여행사는 평양, 남포, 개성 방문의 8일 코스 상품 판매

○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의 대북 투자 사례 :

- 광업 전문대학인 몬탄 대학은 UN의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3년 10월부터 북한 2.8 직동 청년 탄광 복구 사업 진행중
- ‘크리스티안 레룩호바우머 수출컨설팅사’는 북한 인력의 사우디, 카타르 및 제3세계 국가 진출 주선
- ‘제이 네멧쉬케사’는 평양피아노사와 합작계약을 체결하여 2003년부터 피아노 생산을 시작하였으나, 2007년 상반기를 끝으로 평양피아노 공장과의 계약 해지
- 2006년 6월 오스트리아 경제 사절단의 방북시 F.J. Elsener Trading사가 북한 철도청과 철도 레일의 납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

11) 이집트의 오라콤(Orascom) 시멘트 회사는 2007년 7월 북한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평양 명당 무역회사의 일부인 상원 시멘트 회사의 절반을 1억 1500만 달러에 매입하였음.

< 오스트리아 기업의 대북 투자 진출 사례 >

국가	분야	시기	내용
오스트리아	인력 송출 사업	2003	- '크리스티안 레크흐바우머 수출컨설팅사'는 북한 인력의 사우디, 카타르 및 제3세계 국가 진출 주선
	피아노 제작	2002	- '제이 네멧슈케사'는 평양피아노사와 합작계약 체결, 2003년부터 피아노 생산 시작 - 2007년 상반기를 끝으로 평양피아노 공장과의 계약 해지

2) 대북 투자의 전략적 목적 분석

○ 전략적 동기에 의한 투자 분석

- **자원 확보 목적** : 북한의 유전이나 광물자원 개발에 투자하여 매장량의 가치가 무려 2,287조 원에 달하는 북한 희귀 광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
  - **광물자원 개발 사업** : 영국 앵글로 지노 캐피탈의 '조선개발투자펀드', 영국 ORIND, 영국 아미넥스 정유회사, 프랑스 Lafarge SA 등
- **기간 산업 선점 목적** : 발전 설비 및 통신망 현대화 사업, 철도 운송 시스템 현대화 사업 등 인프라를 선점하는 의미가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진출이 활발
  - **발전 설비 및 통신망 현대화 사업** : 스웨덴-스위스 합작 기업 ABB사, 독일 KCC Europe, 스웨덴의 에릭손사, 프랑스의 알카텔사 등
  - **철도 운송 시스템 현대화 사업** : 오스트리아의 F.J. Elsener Trading사, 스위스 술처 테크놀로지 코퍼레이션사 등
-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에 대한 투자 목적** : 잠재가능성이 큰 이머징 마켓을 찾고 있는 세계 투자자들에게 북한 투자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확대되고 있음
  - 독일 '동아시아협회(OVA)', 영국 '파비엔 픽테트 앤 파트너스', 영국 KBC사, 이탈리아 브린델리 컨설팅사, 프랑스 리브라 카운셀사 등

- **저렴한 인건비 활용 목적** :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위탁가공 사업 진행
  - 오스트리아의 네메츠케사, 프랑스의 만화영화 사업 등
- **북한 관광자원 활용 목적** : 평양에 대한 수도 관광 및 북한 폐쇄 사회 관광이라는 특수성을 활용한 관광 사업 진행
  - 독일 베를린 여행사, 프랑스의 CGTT 여행사 등

< 투자 동기별 사업 유형 분석 >

투자 동기		내용
자원 확보 목적		- (英) 앵글로 지노 캐피탈사는 북한 자원개발사업 투자를 위해 5천만 달러 규모 '조선개발투자펀드 조성(증액 예정) - (英) ORIND는 북한과 마그네사이트 공동 개발 사업 중 - (英) 아미넥스 정유회사는 북한 유전개발과 관련하여 20년간 시추권 계약 체결 - (佛) Lafarge SA는 평양 상원시멘트사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 이집트의 오라콤 시멘트회사 인수
기간 산업 선점 목적	발전 설비 및 통신망 현대화	- ABB사는 북한 내 배전망 현대화에 관한 '전기기계설비 생산과 전력망 현대화 협조 합의서' 체결 - (獨) KCC Europe은 북한 온라인시장 선점을 위해 53만 파운드 투자, '내나라'라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개설 - (瑞典) '에릭슨사' 북한 내 무선통신장비 설치 사업 참여 - (佛) '알카텔사' 북한 노후화된 통신 분야 보수, 교체 작업
	철도 운송 시스템 현대화	- (澳) F.J. Elsener Trading사 북한 철도청과 철도 레일의 납품 관련 계약 체결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에 대한 투자 목적		- (獨) 17개 기업 및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동아시아협회(OVA)' 평양사무소를 통해 양국 기업간 개별 상담 진행 - (英) '파비엔 픽테트 앤 파트너스'는 북한 합작회사들에 대한 투자 목적 펀드 조성 중 - (英) '코리아 비즈니스 컨설팅사'는 평양에 지사 설립 - (伊) '브린델리 컨설팅사' 평양 투자 관련 법률사무소 개설 - (佛) '리브라 카운셀사' 북한 내 컨설팅 사무소 설립
저렴한 인건비 활용 목적		- (澳) '제이 네멧슈케사' 평양피아노사와 합작 계약 체결, 2003년부터 피아노 생산 시작 - (佛) 애니메이션 제작업체는 북한의 SEK Studio와 수차례 애니메이션 제작 계약
북한 관광자원 활용 목적		- (獨) 베를린 여행사 북한 철도여행상품 판매 - (佛) CGTT 여행사 평양, 남포, 개성 방문의 8월 코스 상품 판매



### 3) 시사점

#### ○ 중장기적 관점의 투자

- **자원 선점** : 전세계적으로 자원·에너지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아직 미지의 개척지대로 광물자원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어, 북한의 광물 및 지하자원에 대한 EU의 적극적인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기간 산업 선점** : 북한 인프라는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편입이 진행될수록 기간 산업에 대한 막대한 자금의 투자가 예상되어 선점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EU 기업의 이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활발
- **시장 확대 대비 포석 차원** : 북핵 문제 해결 및 테러지정국 해제 등으로 각종 제재가 해소되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아 신흥 이머징 마켓으로서 잠재 성장성에 대한 기대 차원의 EU 기업 투자 진행<sup>12)</sup>

#### ○ 투자 유인 조건의 활용

- **저렴한 인건비 활용** : 북한은 양질의 노동력이 매우 저렴하게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유인을 활용한 EU 기업의 위탁가공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관광자원의 활용** : 북한은 폐쇄 사회로서의 특수성으로 인한 수도관광의 매력이크고, 각종 천연 자연 관광자원도 풍부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관광 코스가 개발되어 EU 기업이 추진하는 관광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12) 주식시장의 부재, 핵 위기 등 투자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음. 파이낸셜타임스 2008.1.21일 보도.

#### 4. 시사점

##### ○ 인도적 지원과 식량 지원 사업은 북핵 문제와 별개로 꾸준히 지속

- 정치·안보적 문제와 인도적 지원 문제 분리 : 인도적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북한의 핵문제 기타 안보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주의적 접근에 따른 무조건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인도적 지원의 개념 확대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범위를 단순한 쌀 지원이나 재난시 구호품 지원의 범위가 아닌 기초적 삶의 질 개선 범위까지 개념을 확대하여야 함
  - (기초 보건 위생 시설 지원) 북한의 식수 문제 뿐 아니라 보건 의료 분야와 공중 위생 분야와 관련하여 현재의 낙후된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 지원) 농업 개발 전략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전수를 통해 기초적인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농업 기술 교육 시범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남한 단위농협이 북한 협동농장에 대한 영농기술지도 수행, 이를 통해 양성된 북한 지도자를 각 협동농장에 파견하는 형태로 추진 가능

##### ○ 북한에 대한 글로벌 개방 체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전문가 세미나의 정례화 : 남북간 경제전문가 및 실무자간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의견 교환이 가능하도록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함
- 북한 관리 및 기업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국내 대학과 기업체들이 북한 관리 및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경제 체제에 관한 연수 프로그램

램을 실행하여 경제 발전 노하우를 전수

- 영어 등 어학 연수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모색 가능
- 한-EU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현재 진행중인 EU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뿐 아니라 동구권의 체제 전환국에 대한 연수 및 교육 과정을 공동 개발하여 북한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추진

- **북한의 경제 개발 관련 법제 인프라 구축 지원** : 북한의 경제 개발 관련 법제 인프라 구축 노력을 독려하고, 남한의 입법 지원 프로그램<sup>13)</sup>을 통해 이를 지원
  -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은행(EBRD) 등 국제금융기구의 주요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 프로그램으로 지원대상국에 제공되는 입법지원 프로그램을 참고하여야 함<sup>14)</sup>
  - 동시에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추진하고 협력하여야 함

#### ○ 남북간 협력에 의한 한반도 자원 확보 노력 시급

- **한반도의 자원 주권 확보** : 대북 광물자원 선점을 위한 EU와 중국의 투자가 확대됨으로써, 통일 대비 및 자원의 안정적 공급처 확보 차원에서 북한이 자원 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중국은 북한산 희귀금속에 주목, 텅스텐·마그네사이트·몰리브덴 등 주요 5개 광물을 역점 투자대상으로 꼽고 조사·개발·판매권을 확보
  - 무산·덕현 등 주요 철광 개발권을 확보하고 북한 최대 구리광인 혜산청년동광의 운영기업을 인수

13) 현재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제전환국 법령정비 지원 등 법률문화 교류사업의 경험에 기초하여 북한에 대한 입법지원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4)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단순입법작업에 그치지 않고 법집행기구의 구성, 담당인원에 대한 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다. World Bank, Legal and Judicial Reform Strategic Directions, 2002. 7. pp. 40~41, www.worldbank.org. European Bank, Law in Transition, Ten Years of Legal Transition 중 David Bernstein, Process drives success: Key lessons from a decade of legal reform p. 7. www.ebrd.org.

- 반면, 한국은 현재 정촌 흑연 광산 개발에 참여하고 황해도 석회석 광산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정도<sup>15)</sup>
- **북한 광물자원 개발 로드맵 작성** : 북한 광물자원 개발 로드맵을 작성하여 장기적 안목의 남북간 광물자원 개발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우선적으로 북한의 인프라가 열악해 채굴 비용 부담이 예상되므로, 광산 및 석유, 금광, 해사 같은 광물의 굴진과 선광 능력 등을 갖춘 북한 광물회사와 합영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현재의 개별 광산 투자 운영의 규모 및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북한자원개발펀드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천연자원 개발과 효율적 관리에 대한 교육을 통해 노하우를 전수하고, 협력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음
- **북한 기술 표준 설정을 위한 기간 산업 분야의 남북 경협 지속적 추진**
  - **인프라 관련 사업 분야 참여 활성화** : 철도·통신 인프라 분야에 대한 기술 표준 설정이 중요한데, 이 분야에 대한 남북 협력을 통해 북한 기간 산업에 대한 EU 기업의 선점을 견제해야 함
    - 발전 설비 및 통신망 관련 사업을 개성공단 등지에서 북한 전역으로 확대하여 주요 도시의 발전 및 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 진행
    - 민간 PF 및 남북 SOC 협력 자금 조성과 국제 기구 자금 및 국제 인프라 펀드 활용 등으로 국내외 자금 확보를 통해 북한 철도 운송 인프라 개보수 사업 진행

이 해 정 연구원 (☎ 3669-4487, hjlee@hri.co.kr)

15) 서울경제 2008.1.16일 보도.

< 참고 > 북한과 EU의 경제 협력 현황

1. 북한과 EU의 교역 현황

< 북한과 EU의 교역 현황 >

(단위 : 천 달러, %)

국가명	북한의 수출			북한의 수입			수출입계			점유율(%)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독일	22,630	14,698	17,000	68,563	62,069	59,294	91,193	76,767	76,294	34.9	26.3	32.6
네덜란드	8,270	6,782	10,318	10,549	35,451	21,853	18,819	42,233	32,171	7.2	14.5	13.7
스웨덴	244	337	794	28,384	34,499	23,619	28,628	34,836	24,413	11.0	11.9	10.4
영국	747	1,842	18,478	419	515	619	1,166	2,357	19,097	0.4	0.8	8.2
스페인	4,477	7,364	10,202	8,639	9,483	6,737	13,116	16,847	16,939	5.0	5.8	7.2
이탈리아	3,895	689	1,539	10,804	11,863	11,644	14,699	12,552	13,183	5.6	4.3	5.6
벨기에	4,838	1,860	378	17,070	11,034	12,487	21,908	12,894	12,865	8.4	4.4	5.5
폴란드	2,698	17,490	2,781	1,749	4,053	7,314	4,447	21,543	10,095	1.7	7.4	4.3
덴마크	2,089	1,812	2,682	11,216	11,099	4,912	13,305	12,911	7,594	5.1	4.4	3.2
아일랜드	0	5,161	1,879	0	283	5,556	0	5,444	7,435	0.0	1.9	3.2
프랑스	27,090	30,042	1,878	6,620	7,564	3,711	33,710	37,606	5,589	12.9	12.9	2.4
오스트리아	1,304	665	626	5,366	1,985	2,411	6,670	2,650	2,491	2.6	0.9	1.1
그리스	2,691	879	375	483	1,257	1,377	3,174	2,136	1,752	1.2	0.7	0.7
체코	2,547	322	237	2,195	369	1,416	4,742	691	1,653	1.8	0.2	0.7
슬로바키아	1,883	235	81	996	1,290	674	2,879	1,525	755	1.1	0.5	0.3
슬로바키아	420	45	8	685	4,893	591	1,105	4,938	599	0.4	1.7	0.3
핀란드	6	2	150	133	2,773	246	139	2,775	396	0.1	0.9	0.2
헝가리	405	270	163	370	184	100	775	454	263	0.3	0.2	0.1
룩셈부르크	37	16	134	16	1	22	53	17	156	0.0	0.0	0.1
포르투갈	87	63	87	42	313	34	129	376	121	0.0	0.1	0.1
사이프러스	0	500	100	0	0	0	0	500	100	0.0	0.2	0.0
몰타	0	49	52	0	0	0	0	49	52	0.0	0.0	0.0
에스토니아	468	1	1	6	0	45	474	1	46	0.2	0.0	0.0
리투아니아	81	34	17	2	0	0	83	34	17	0.0	0.0	0.0
총계	86,907	91,158	69,960	174,307	200,978	164,662	261,214	292,136	234,076	100.0	100.0	100.0

자료 :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참조.

2. EU의 KEDO 사업 지원 실적

< EU의 KEDO 사업 지원 실적 >

(단위 : 백만 달러)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공사비	-	-	-	-	-	-	-	18	-	-	-	-	18.0
행정 예산	-	-	-	0.9	1.2	1.4	1.6	1.5	1.3	1.1	1.0	1.0	11.0
중유	-	6.3	28.4	16.7	14.3	12.9	16.1	-	-	-	-	-	94.7
소계	-	6.3	28.4	17.6	15.5	14.3	17.7	19.5	1.3	1.1	1.0	1.0	123.7
한국	1.8	2.7	3.0	3.6	3.5	292.6	237.5	245.6	280.4	78.2	25.2	12.4	1,186.6
집행이사국 지원 총계	23.3	40.3	63.5	77.5	91.8	502.3	436.8	436.9	367.2	106.0	36.0	19.2	2,200.7

자료 :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KEDO 경수로사업 지원 백서』, 다해미디어, 2007. p. 129 참조.

월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국내경기 둔화 우려

- 12월 중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로는 반도체 및 부품, 영상음향통신 등을 중심으로 12.4%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0.4% 감소하여 미국 서브프라임의 여파로 인한 국내경기 둔화 우려를 낳고 있음
  - 업종별 산업생산에서는 반도체 및 부품(전년동월대비 39.3%), 영상음향통신(14.2%), 기계장비(7.5%) 등이 호조를 나타내었으나, 사무회계용기계(-17.2%), 자동차(-2.9%) 등은 부진을 면치 못했음
  - 소매판매는 의복, 차량용연료 등의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2.6% 증가에 그친 반면, 설비투자는 운수장비, 통신기기 등의 투자가 호조를 나타내어 전년동월대비 7.4% 증가하였음
  - 현재 경기상황을 나타내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달보다 0.2p 상승하였으나, 향후의 경기국면 예고지표인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대비 0.1%p 하락하여 국내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음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6		2007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11월	12월	
경기	수요	경제성장률	5.0	4.0(0.9)	4.9	4.0(0.9)	5.0(1.8)	5.2(1.3)	5.5(1.5)	-	-
		소비재판매	4.7	4.5	6.6	7.1	5.3	8.6	5.5	6.0	2.6
		설비투자추계	7.4	5.1	6.6	11.3	12.1	-1.9	5.0	4.1	7.4
		건설수주	9.0	27.1	19.3	26.3	26.3	-5.6	29.6	36.3	1.4
		수출	14.4	13.8	14.2	14.6	14.1	9.4	18.5	17.1	15.5
	공급	광공업생산	10.1	5.2	8.2	3.3	7.0	8.3	13.8	10.8	12.4
		취업자수 (만명)	2,315	2,330	2,343	2,284	2,370	2,361	2,358	2,374	2,326
		실업률 (%)	3.5	3.2	3.2	3.6	3.2	3.1	3.0	3.0	3.1
		수입	18.4	13.0	15.3	13.4	14.6	7.2	25.7	25.9	24.0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54	61	60	-17	0.3	44	32	15
무역수지 (억\$)	161		75	151	24	51	45	31	21	-9	
물가	소비자물가	2.2	2.2	2.5	2.1	2.4	2.3	3.3	3.5	3.6	
	생산자물가	2.3	2.0	2.7	1.8	2.5	2.0	4.3	4.4	5.1	
	생산자재물가	4.8	1.8	4.7	2.1	3.3	2.5	11.1	12.0	13.5	
	최종재물가	0.5	0.4	1.1	0.3	1.1	0.6	2.5	2.9	3.2	

주 : 경제성장률의 (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잔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주가 및 금리의 대폭 하락

○ (해외 금융 시장) 美 연준, 기록적인 금리 인하

- 금리: 미 연방은행이 두 차례에 걸쳐 페더럴펀드 금리를 1.25%p 인하한데 따른 영향으로 전월대비 대폭 하락 (국채 10년물 : 4.02→3.59%)
- 환율: 글로벌 신용경색과 경기침체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미 연방은행의 금리 인하 영향으로 글로벌 달러화 약세 시현 (\$/€:1.4593→1.4861, ¥/\$:111.7→106.5)

○ (국내 금융 시장) 주가, 금리의 대폭 하락

- 주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우려에 대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투자심리가 악화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전월말 대비 폭락 (1,897.1→1,624.7)
- 금리: 대내외 주가가 급락하면서 은행권으로 자금 유입 및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채권에 대한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전월말 대비 대폭 하락 (국고채 3년 수익률, 5.74→5.10%)
- 환율: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로 역외세력의 달러화 수요 및 외국인투자자의 대규모 주식 순매도 등으로 954.0원까지 상승하였으나, 미국의 금리 인하로 다소 진정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전월 대비 상승 (936.1→944.2원)

○ (전망) 대외 불안 요인 상존으로 금융시장 혼조 지속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6		2007				2008	
		3/4	4/4	1/4	2/4	3/4	4/4	1.25	2.1 <sup>1)</sup>
국내	거래소 주가	1,371.4	1,434.5	1,452.5	1,743.6	1,946.5	1,897.1	1,694	1,634.5
	국고채3년(%)	4.57	4.92	4.76	5.26	5.46	5.74	5.19	5.05
	원/달러	946.2	929.8	940.9	923.8	915.1	936.1	946.5	944.2
해외	DOW	11,679	12,463	12,354	13,409	13,896	13,265	12,207	12,650
	Nikkei	16,128	17,226	17,288	18,138	16,786	15,308	13,629	13,592
	미국채10년(%)	4.63	4.70	4.57	5.02	4.59	4.02	3.55	3.59
	일본채10년(%)	1.68	1.69	1.60	1.88	1.69	1.51	1.49	1.45
	달러/유로	1.2674	1.3199	1.3354	1.3542	1.4267	1.4593	1.4682	1.4861
	엔/달러	118.18	119.07	117.83	123.18	114.80	111.65	106.74	106.45
	두바이(\$/배럴)	57.33	56.71	63.12	66.42	76.64	89.06	85.54	87.25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1.31) 기준



# 내 인생 최고의 멘토를 만나다!

## Creative business contents tank, Usociety

21세기는 지식 경쟁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트렌드, 나만 뒤쳐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비즈니스맨들의 창조력 충전 및 경쟁력 확대를 위한 지식 정보 콘텐츠,  
 Usociety에서 만나보세요.

### 비즈니스 지식 정보 TV, CreativeTV.co.kr

창조의 5분, 성공의 5분! 그 5분을 위한 다이제스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Usociety의 미션입니다.  
 HD VIDEO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과 지혜를 나누십시오.



### 글로벌 비즈니스의 완성, EBS 어학 프로그램

최고의 어학 강의, EBS 어학 콘텐츠! 국내 대표 강사진들의 명 강의로 구성된 3,200편 이상의 풍부한 어학 프로그램을 Usociety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Business	Conversation	Global
영어인터뷰 START 인터뷰 영어족보 비즈니스영어 모질게 new TOEIC 비겁한 new TOEIC 外	Style English Survival English 영어 말하기 START Oxford 회화 말미잘 English 外	리듬 중국어 입문 이키이키 일본어 러시아어 첫걸음 스페인어 첫걸음 터키어 첫걸음 外

### 차별화된 경쟁력, Competency Tools

#### 지식노트

경제, 사회, 문화에서 저널까지 한 눈에 보는 weekly webzine

#### U-Times

지식 트렌드를 손에 잡을 수 있는 콘텐츠 매거진

#### U-Planner

프로페셔널리즘의 시작, 웹 프랭클린 플래너

#### eBook

비즈니스에서 교양까지, 신간으로만 채워지는 digital library